

아시아 공동체 : 중세의 동아시아 교류와 하카타(博多)

글쓴이: 黃美惠

이번 제 13 회 One Asia 국제 강좌에는, 쉬싱칭(徐興慶) 총장께서 특별 초청하신 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겸 원장이신 사에키 히로지(佐伯弘次) 교수께서 본교를 특별 방문하셔서 「동아시아 공동체 : 중세의 동아시아 교류와 하카타(博多)」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셨다. 이번 강좌를 마친 후, 사에키 교수께서는 장징후(張鏡湖) 이사장을 만나뵙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에키 히로지(佐伯弘次) 교수는 일본 중세사 연구분야의 저명한 학자이시며, 대표 저서로는『日本の中世 9.モンゴル襲來の衝撃』(中央公論新社, 2003년), 『対馬と海峽の中世史』(山川出版社, 2008년),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景仁文化社, 2010년) 등의 여러 저서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강좌에서 사에키 교수께서는 그의 오랜 연구 및 학술 성과들을 총망라하여「중세 동아시아의 교류와 하카타(博多)」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중세(11세기-16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 한반도, 일본, 류큐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宋, 元, 明), 한반도(고려, 조선), 그리고 류큐와 오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하카타는 중세 일본에서 대표적인 무역항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중

세 하카타의 도시 발전은 시대순서로 거슬러 올라 고로칸 시대(鴻臚館時代) (7-11 세기), 일본-송나라 무역 (11-13 세기), 몽고 침입 (1274 년 · 1281 년), 일본-원나라 무역 (13-14 세기), 일본-명나라, 일본-조선, 일본-류큐 무역(14-16 세기), 그리고 자치도시의 형성 순으로 이어지며 , 이번 강좌에서 사에키 교수께서는 15 세기의 일본과 명나라, 조선, 류큐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하카타 라는 도시와 그곳의 상인들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 깊이있는 강좌를 진행하셨으며, 고고학적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고증을 진행하였다. 강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세기 일본은 무로마치(室町) 시대였습니다. 무로마치(室町)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무로마치 시대는 제 3대 막부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 (135-1408 년) 의 정치적 전성기였으며, 경제 및 산업이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이고 또한 외교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가 크게 번성하였고 찬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토(京都)에 위치한 「금각사(金閣寺)」가 바로 요시미쓰가 이 시기에 건립했던 건축물입니다.«금각사(金閣寺)」는 기타야마(北山) 문화의 대표이며, 그 특징은 바로 전통적인 쿠게(公家) 문화와 신흥의 우케(武家)문화가 융합한 문화이며, 또한 중국에서 전래된 선종(禪宗)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수묵화, 다도, 이케바나(花道), 가레산스이(枯山水), 노(能劇) 및 교우겐(狂言)등 오늘날 익히 알려진 일본의 전통 문화는 대부분 무로마치 시대에 탄생한 것들입니다. 사에키 교수는 또한 이와오 무네노리(飯尾宗祇)의『츠쿠

시 도기(築紫道記)』(1480 년) 의 기록을 인용하여 , 15 세기의 하카타가 바로 일본과 명나라, 조선, 류큐와의 안정적인 관계와 무역이 번창하고 왕성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중세 일본의 주요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게 된 원동력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본과 명나라 간 무역의 특징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명나라 조정 황제로 부터 「일본국왕(日本國王)」의 직책을 책봉을 받았으며 명나라를 상대로 조공 무역을 하였습니다. 명나라는 그들을 왜구(倭寇)와 차별을 두기 위해, 일본에 무역 허가증인 “감합부(勘合符)”를 발행하였으며, 양측의 무역은 오직 승인된 정식 견명선(遣明船)을 통해서만 허가되었으며 , 역사적으로는 이를 “감합무역(勘合貿易)”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에키 교수는 또한 15 세기의 하카타 상인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였는데, 일본 국내의 관련사료가 비교적 분산되어 하카타 지역에도 해당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데다가, 많은 하카타 상인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해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자료들의 디지털화와 온라인의 자료 공개 및 검색 열람이 상당히 발전하고, 더불어 하카타 유적군 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하여, 현재로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카타의 무역상인 중 사국명(謝國明,しゃこくめい)(하카타 綱首), 소탄카미야(神屋宗湛), 시마이 무네무로(嶋井宗室)등은 당시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인들도 많이 활동하였었습니다. 사에키 교수는 역사 연구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역사사료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발굴 해내어 소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강좌에서 특별히 그가 모은 해외의 진귀한 사료들을 공개하며 ,하카타 상인들의 여러 모습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에키(佐伯)교수는 또한 아래의 5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室町시대의 츠쿠시(築紫) 商客(하카타 상인) 코이토미(肥富)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선린국보기(善鄰國寶記)』중의 기록에 따르면 '오우에이(應永) 초년 (1394 년) , 츠쿠시(築紫)의 상인 코이토미가 명나라에서 귀국하여 양국을 왕래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설명하였다. 타이쇼군(大將軍) 미나모토노 요시미쓰(源朝臣義滿)은 코이토미를 사자로 임명하여 , 국서의 왕래를 시작하였으며 , 또한 물품을 진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코이토미가 아시카가 요시미쓰에게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강조한 것은 견명선(遣明船) 파견 성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킨(宗金)과 그 일족에 대한 이야기로 사에키 교수는『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에 소킨과 그 후대의 자손들이 일본국왕의 사자로 활동하였고 宗金과 그 일족이 조선과의 무역을 위주로 하여 명나라와 류큐국과도 무역 하였으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치야스(道安)의 이야기로 이 상인은 지도사(地圖史)와 대외관계사에 큰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에 기록된 일본과 류쿠 지도의 저본은 바로 미치야스가 단종(端宗) 원년 (1453 년)에 조선 조정(朝廷)에 헌상한 「하카타(博多) · 사쓰마(薩摩) · 류쿠(琉球) 상거지도(相距地圖)」이며, 이는 지도사 분야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외관계사에서는, 미치야스가 일찍이 류큐국왕의 사신의 신분으로 조선에 갔었으며, 조선조정으로부터 예우와 무역조건 혜택등을 제공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57 년, 조선조정은 미치야스가 표류민들을 호송하는데에 공이 있음을 인정하여 그에게 호군(護軍)의 직책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치야스는 조선 · 하카타(博多) · 류쿠의 무역로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후지(藤) 씨 일족입니다. 그 중 藤氏母는 조선 무역에 활약하였으며, 보기 드문 여성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쿠도(奥堂) 씨 이야기입니다. 일본-명나라 무역 중엽기에 활약하였던 대상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카타에 「오쿠도(奥堂)」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 하카타구 御供所町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에키 교수는 15세기 하카타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교류 및 도시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 많은 외국사절들이 일본으로 향하였으며, 대다수는 일본 국왕 (무로마치 쇼군을 만나는 사자로 파견이 되었으나 그 중

다수는 하카타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하카타의 도시 발전이 촉진 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카타 유적군의 유적 발굴 및 조사는 중세 도시의 형태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줍니다. 특히 많은 무역 도자기 (중국 · 조선 · 동남아산 도자기) 들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무역의 한 구체적인 면모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카타상인의 경제 무역 및 대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따라, 하카타의 도시적 번영이 함께 성장하게 되었으며, 상인들은 서로 단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 세기에는 대상인들의「합의제(合議制)」관리의 자치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의 하카타는, 쿠시다(櫛田) 신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매년 7 월 1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거행되는「기온 야마카사(祇園山笠)」전통 민속 축제는, 바로 중세의 자치 도시 전통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에키 교수의 강연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 도시 하카타 (후쿠오카시福岡市)와 동아시아의 교류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됨과 동시에 학생들이 현대 도시의「구(舊)와 신(新)」그리고「과학기술과 전통」의 공존의 의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